

대학원생 교육A/02/

듀이(Dewey, J.) 하나의 경험으로서 심미적 경험의 의미와 예술교육

김아름 (성균관대학교 교육철학 박사과정)

「차례」

1. 들어가며
2. 하나의 경험으로서의 심미적 경험의 의미와 예술교육
 - 1) 하나의 경험으로서 예술의 의미
 - 2) 하나의 경험으로서 심미적 경험
 - 3) 심미적 경험으로서 예술교육
3. 나가며

<국문초록>

본고는 듀이의 예술철학의 핵심이론인 '하나의 경험(an experience)과 예술의 긴밀한 관련성을 규명하는데 일차적 목표가 있다. 즉, 하나의 경험으로서의 예술의 성질을 밝히고 그의 질적 특성을 밝히고자 한다. 이차적으로는 하나의 경험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 '심미적 경험'(aesthetic experience)으로 발전하는지에 관한 철학적 고찰을 통해 진정한 의미에서의 심미적 경험이 무엇인지를 규명하는 작업을 할 것이다. 하나의 경험으로서의 심미적 경험을 이해하는 것은 듀이의 예술철학 사상을 이해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심미적 경험과 예술교육의 관계성을 규명함으로써 듀이가 주장한 예술교육의 의미를 단편적으로 이해하고 적용해왔던 이론적 한계를 보완하고 듀이 예술철학에 근거하여 예술교육의 철학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그 의의를 지닌다.

주제어

존 듀이, 예술, 하나의 경험, 심미적 경험, 예술교육

1. 들어가며.

듀이의 예술철학의 핵심이론은 '하나의 경험(an experience)의 개념이다. 학술계뿐만 아니라 대중적으로도 널리 알려진 '하나의 경험'을 예술교육 분야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예술교육 철학의 기초로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그 실상을 들여다보면 실제 듀이가 말한 '하나의 경험'의 의미와 예술교육에서 이뤄지고 있는 '하나의 경험'에는 실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예로 듀이의 '하나의 경험'을 예술교육에 적용한 연구 논문으로 자주 인용되는 박연숙(2014)의 「<광부화가들>과 경험으로서의 예술(이하생략)」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경험'의 예시는 듀이가 말한 '하나의 경험'이라기 보다는 일종의 미적 카타르시스의 경험을 보여준다. 듀이의 '하나의 경험'을 '하나의 잊혀지지 않는 사건'으로 해석하거나 '하나의 카타르시스적 경험'으로만 해석한다면 의미상의 오류가 자주 발생한다.

듀이의 '하나의 경험'은 그의 경험교육론을 통해 일관되게 주장해온 환경과의 교호작용과 경험이 가지는 질서적 특성 중에서 심미적 요소가 부각된 경험으로서 이해해야 한다. 즉, 듀이는 경험에 있어서 균형과 조화를 강조하였으며 통합성과 완결성을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의 '하나의 경험'을 강조하였다.

'하나의 경험'은 듀이가 만들어 낸 용어의 참신함 때문에 예술교육 분야에서 일종의 내적 경험의 해방감으로 해석하는 오류를 만들어 냈지만, 듀이가 말한 '하나의 경험'은 모더니티한 사고에서 비롯된 매우 정제되고 형식화된 결과물로서 마치 건물(building)을 지어가듯 차곡차곡 과정을 축적하여 마침내 하나의 완결된 경험을 완성해 나가는 작업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른 해석일 것이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듀이는 어디까지나 미국의 사상가이며 투입(in-put)이 있다면 반드시 산출(out-put)이 있어야 한다는 미국주의의 산물에서 벗어날 수 없는 프래그머티즘(pragmatism)의 사상가로서의 한계를 인식해야 한다. 그러므로 듀이의 '하나의 경험'을 포스트모더니즘적인 접근법으로만 해석한 많은 예술교육 논문들은 다시금 그 의미를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본 고에서는 이러한 맥락에서 듀이의 '하나의 경험'의 의미를 재정립하고, 하나의 경험과 예술의 관련성을 논의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듀이가 진정으로 말하고자 했던 하나의 경험으로서의 심미적 경험이란 무엇이며 이는 예술교육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밝히는 데까지 논의를 전개할 것이다.

2. 하나의 경험으로서 심미적 경험의 의미와 예술교육

1) 하나의 경험으로서 예술의 의미

듀이의 '하나의 경험'의 의미를 명료화하면 하나의 경험과 예술의 관련성 또한 명료화된다. 그러므로 듀이의 하나의 경험의 의미를 먼저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는 일상에서 많은 경험을 겪는다. 듀이는 이러한 반복적이고 무감각한 경험과는 다른 질서적 성질이 포착되는 경험 즉, 질서적

사고를 통해 경험되어진 미적 경험에 초점을 맞춘다. 이러한 경험은 다른 일반 경험과는 달리 심미적 요소를 갖춘 완결성 있는 '하나의 경험'(an experience)으로 발전하게 된다. 이러한 하나의 경험은 우리의 삶을 질적으로 고양시키고 무뎠던 예술적 감수성을 깨운다. 듀이는 이러한 미적 경험을 통해 근본적인 의식의 깨어남이 일어난다고 보았다. 의식의 깨어남이란,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 즉 자신을 둘러싼 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부터 뭔가 다른, 새로운 신호(signal)와 의미(meaning)를 포착하고 획득하게 되는 경험인 것이다.

상호작용 혹은 교호작용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듀이의 하나의 경험을 이해하는데 가장 전제가 되는 개념이다. 인간(유기체)은 곧, 그것이 살아있는 존재, 그 존재 자체가 가진 생명력과 그것의 주변 환경, 즉 자연(살아있는 또 다른 유기체)을 향해서 생명력을 발산하기도 하며 수렴되기도 하는, 역으로 보면 자연으로부터 '살아있음'(A live)에 관한 사인(sign)을 끊임없이 주고받는 유기체의 간의 교호작용을 통해서 인간은 생명력의 원천을 확인하게 된다.

그러므로 인간의 경험은 자연과의 교호작용(상호작용)으로 발생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인간의 성장(growth)과 변화(change) 그리고 발전(development)이 거듭될 수 있다. 인간은 여러 가지 경험 중에서도 자신을 성장시키는 경험을 선택하고 그것의 최종 목적지를 향해 끊임없이 경주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맞닥뜨리게 되는 고통스러운 상황과 위기상황, 장애물, 방해물을 극복하는 것 또한 하나의 경험에 이르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인 것이다. 그러므로 일차적인 의미에서 하나의 경험이란 처음-중간-끝으로 완결되는 사실적인 경험으로서, 중간에 중단되거나 도중에 포기한 경험은 하나의 경험이라 부를 수 없다.

그런데 듀이는 완결되는 경험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처음 의도한 결과와 불일치한 결과물을 내놓은 경험에 대해서는 완전한 하나의 경험으로 보지 않는다. 다시 말해 불완전한 경험에서는 관찰한 것과 생각하는 것, 원하는 것과 성취된 것이 서로 불일치하게 나타난다고 보았기 때문에, 일정한 진행 과정에 따라서 의도한 목적대로 달성한 완결된 경험에 한해서만 '하나의 경험'을 하였다고 보았다.¹⁾

요약하면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의 경험은 가장 완벽한 조화와 균형을 이룬 상태로서의 경험으로, 경험을 이루고 있는 각각의 구성요소들이 전체적인 질성에 의해 통합되고 완결된 상태가 최고조에 이른 경험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듀이는 하나의 경험의 성격을 가장 잘 드러내는 분야가 바로 '예술'이라고 보았다. 예술은 '하나의 작품을 완성하기 위해서 완결된 '하나의 경험'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예술가는 매 순간순간 자신의 작업을 이전 작업들과 비교하고 반추해 보면서 잘된 점과 못한 점을 수정하고 선별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이어가야 한다. 그리고 앞으로 완성될 작품을 자신의 상상력과 사고과정 안에서 그려보면서 작품의 완성을 목표로 전진하는 일련의 과정의 산물로서 예술을 이해하였다. 이것은 예술작품이 단순히 예술가의 감각에만 의존하여 일회성으로 만들어진 결과물이 아닌, 예술작품을 구성하는 여러 심미적 질성 간의 복잡한 관계를 고려해야 하는 엄밀하고 신중한 사고력을 요구하는 고도의 지적인 작업으로서 과학자나 철학자의 지적행위와 다를 바 없는 수준으로 예술의 지적작업을 인식하였다는 면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1) 박철홍역(2018), 『경험으로서 예술 I』, p88

다시 말해 듀이는 지적 경험과 심미적 경험(예술과 학문)의 근본적인 차이는 성격의 차이가 아닌 재료의 차이에서 기인한다고 보았다. 즉, 순수예술의 재료는 주로 질성인데 반해 지적 경험의 재료는 기호와 상징인 것이다.²⁾ 그러나 양자는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움직임 속에서 경험을 통합하고 완결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측면에서, 궁극적으로 인간의 실존과 본질을 파악하는 지적이며 실천적이며 정서적인 경험을 조직화한다는 측면에서 같은 성질의 지적체계인 것이다. 그러므로 듀이는 예술을 과학이나 철학보다 낮은 학문으로 격하시키려고 했던 기존의 전통철학적 입장에서 벗어나 예술의 학문적 위치를 격상시키고, 예술에 있어 경험의 중요성과 질성적 사고의 중요성을 발견하여 이를 이론화하였다는 측면에서 그의 예술 철학적 업적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듀이에게 있어 하나의 예술작품을 완성한다는 것은 지적이면서, 실천적이며, 정서적인 질적 특성이 한데 어우러진 복합적인 양태로서 이러한 경험의 구성요소들이 주로 정서적 질성에 의해 통제를 받는 심미적 질성에 의해 통일성 있고 완성도 있게 표현되어야지만 '하나의 예술작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보았다. 이는 예술작품이란 실제 세계를 있는 그대로 완벽하게 구현해 내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세계의 표피, 그 이면을 드러낼 수 있는 창조성을 가져야 한다고 보았던 것이다. 예술가란 자신의 기교와 솜씨로 일상의 사물을 완벽하게 재연해내는 장인이 아닌, 일종의 능동적 창조자의 위치에 있는 것이다.

물론 이 때문에 예술가의 위치를 지나치게 신격화한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게 되었으나 듀이가 말한 의도는 예술가가 조물주의 위치와 동일하다는 것이 아니라 신이 세계를 창조한 만큼의 능동적인 창조성과 감수성을 예술가 역시 지니고 있어야지만 예술가로서의 참된 태도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기존의 것을 그대로 답습하거나, 기존의 관습체계를 그대로 재인한 것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예술이라고 볼 수 없다는 듀이의 입장은 이미 포스트 모던적인 사고라 할 수 있다. 그런데 하나의 경험의 의미에 관해 설명할 때, 경험에 일정한 형식과 질서를 부여하고, 완결성 있는 경험, 규범적이고 가치 있는 경험을 선별해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부분에서는 모던적인 사고를 나타낸다.

여기에서 문제점은 듀이가 의미하는 하나의 경험으로서의 예술은 예술가를 능동적인 창조자의 위치로 격상시키는 동시에 그 결과물로서의 예술작품은 매우 정제되고 조화로운 형태의 작품만을 인정하는 이중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듀이식의 모순(paradox)은 그를 모더니즘 사상가로 볼 것인가 아니면 포스트모더니즘 사상가로 볼 것인가에 관한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지점이었다.

2) 하나의 경험으로서 심미적 경험

듀이가 가진 하나의 경험에 대한 생각과 예술에 대한 이중적인 태도는 심미적 경험의 의미를 탐구하면서 완충된(혹은 통합된) 입장을 찾고자 시도한다. 듀이는 예술적인(artistic) 행위 즉, 무언가를 만드는 창작행위와 작품을 감상하고 향유 하는 심미적(aesthetic) 행위를 따로 구별 짓지 않았다. 전통적 예술론에서는 이 둘의 행위는 명백히 구분되었고, 예술가와 감상자의 경계는 분명하였다. 그

2) 위의 책, p94

러나 듀이는 예술에 있어 창작과 감상은 '하나의 경험' 안에서 통합되어야 하며, 이 둘은 별개의 활동으로 구분 지을 수 없는 긴밀한 관련성을 가진다고 보았다.³⁾

다시 말해 예술가는 창작과 감상을 동시에 행위 하는 통합자이며, 감상자 역시 작품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예술작품을 자신의 것으로 재창조하는 통합자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예술가는 작품을 제작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작품을 최초로 향유 하는 감상자라는 점에서 누구도 이변이 없다. 문제는 감상자가 어떻게 작품을 '재창조' 하는 통합자가 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듀이가 말하는 감상자의 재창조 행위가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한다.

참된 의미에서 감상자가 예술작품을 제대로 지각하기 위해서는 감상자도 자기 자신의 경험을 '창조'해야만 한다. 감상자가 경험을 창조하려면 감상자는 예술작품을 만들어 낸 예술가가 경험한 것이 필적한 만한 경험을 해야 한다. (중략) 예술작품을 감상할 때 이러한 '재창조' 행위가 없다면 그 작품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예술작품으로 지각되지 않는다. (중략) 예술가와 감상자는 모두 자신이 하는 경험에서 의미 있는 것을 뽑아내고 추상화하는 일을 수행한다. 나아가 예술가나 감상자는 모두 흩어져 있는 부분들을 모아서 하나의 전체를 만드는 것, 즉 말 그대로 통합적인 이해를 추구한다.⁴⁾

인용문을 통해 감상자의 재창조 행위는 예술가가 경험한 것에 필적할 만한 '유사창작행위'를 경험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감상자는 예술가가 그러했던 것처럼 자신의 관점과 관심사에 의해서 작품을 재조명하고 명료화하며 추상화하는 또 하나의 과정을 경험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유사창작행위를 통해서 감상자는 하나의 경험으로서 심미적 경험에 이를 수 있다고 보았다.

이를 듀이의 용어에 따라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 "작품을 진짜 받아들이기" 혹은 "작품에 뛰어들기" 등의 표현으로 사용할 수 있다.⁵⁾

그렇다면 듀이가 말하는 작품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그것은 작품을 단순한 재인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온몸의 감각기관을 총동원하여 작품의 심미적 질성을 포착해 내는 것을 말한다. 또한, 포착한 질성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전과는 다른 작품의 새로운 의미(meaning)와 마주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감상자가 새롭게 만들어 낸 의미로서 예술가가 부여한 의미와는 다른 종류의 것이다. 듀이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경험대상을 향해 온 힘을 다해서 뛰어들어야 한다고 보았다. 하나의 예술작품이 완성된 순간, 이미 그 작품은 예술가의 손에서 벗어나 오히려 작품으로서의 실재(實在)로 존재하게 된다. 그 작품과의 실존을 마주하는 사람은 감상자의 몫이다. 그러므로 감상자는 예술 작품과의 만남에서 가만히 기다리고 있을 것이 아니라 그 장면에 대해 능동적으로 반응해야 한다. 여기서 능동적인 반응이란, 작품세계를 더 깊이 들여다보고자 하는 지적인 노력과 지금까지 작품에 대해 알고 있었던 관습적 지식을 벗어나고 자신만의 경험과 의미로 새롭게 작품을 해석하고자 도전하는 실천적 의지, 자신의 지각을 생생하고 활기 있게 만들어서 또 하나의 경험으로 작품과 소통하고자 다가가려는 정서적 의지를 포함하는 총체적인 심미적 경험을 의미한다.

이러한 감상자의 유사창작행위를 통해서 감상자는 더이상 예술가(원작자)의 해설에 의존하지 않

3) 위의 책, p108

4) 위의 책, p124

5) 위의 책, p121~122

는 수동적인 감상자의 위치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작품을 음미하고, 맛보며, 향유 할 수 있는, 심미적 경험의 세계로 초대되는 것이다. 이것이 듀이가 말하는 하나의 경험으로서의 심미적 경험이다.

이러한 심미적 경험은 일시적인 감각적 경험과는 구분되어야 한다. 듀이는 심미적 경험이 '하나의 경험'으로 이어지기 위해 완결된 과정으로 나아가기까지의 만만찮은 노력과 수고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즉, 감상자가 예술작품을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통합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자신이 가진 지식과 새롭게 경험된 지식을 자신의 마음속에서 통합시키는 숙성의 시간이 필요하며, 충분한 심미적 경험으로 나아가기 위한 오랜 시간의 훈련과 예술교육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러한 심미적 경험은 일상 경험에서 비롯되는 것이지만, 실제 일상 경험과는 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자주 접할 수 있는 경험은 아니다. 우리가 아무리 미술관을 좋아한다고 해서 생업을 포기하면서까지 미술관을 다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듀이가 말한 심미적 경험은 하나의 경험과는 달리 매우 진보적이고 포스트모던 적인 생각을 말하고 있다. 여기서 듀이는 모더니즘에서 포스트모더니즘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성향을 띠는 사상가이며 특히 예술에 관해서는 포스트모던 적인 입장을 지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제 심미적 경험을 위해 필요한 예술교육에 관한 듀이의 입장은 무엇인지 알아보기로 한다.

3) 심미적 경험으로서 예술교육

우리가 대상을 제대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오랜 기간 동안의 훈련을 통해 지식과 기술을 쌓아야 한다. 과학자가 망원경이나 현미경으로 사물을 제대로 관찰하거나, 지질학자가 눈에 보이는 자연경관을 지질학적으로 볼 수 있기 위해서는 상당한 정도의 도제식 훈련이 필요하다. 그런데 예술작품을 제대로 감상하기 위해서는 과학자나 지질학자처럼 진지한 훈련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다. 대부분은 사람들은 심미적 지각은 진지한 훈련을 받지 않아도 특별한 순간에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⁶⁾

위의 인용문을 보면, 심미적 경험에 필요한 예술교육이 어떠해야 하는지 그의 주장을 잘 드러내는 동시에 다시 듀이의 모더니즘적인 사고방식이 그대로 드러나는 대목이다. 그는 예술교육에 있어 (여기서 예술교육이란 감상자의 심미적 경험에 필요한 교육을 의미한다.) 매우 진지한 훈련과 도제식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우리는 흔히 듀이의 심미적 경험을 참여자 중심교육, 체험중심 교육, 흥미(interest)위주 교육으로 인식하는데, 이는 실제 듀이의 주장과는 전혀 다르다.

듀이는 심미적 경험을 위해서 지적 경험과 마찬가지로 높은 수준의 도제식 훈련과 지적 노력을 요구하고 있다. 작품을 생생하고 온전하게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도제식의 까다로운 훈련과 교육을 통과해야 한다고 보았던 것이다. 우리가 예술-창작행위를 한다고 했을 때 전혀 이론적인 배경이나 기술적인 훈련 없이 창작행위를 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감상자의 심미적 경험을 위해서는 선행되어야 하는 충분한 예술교육에 필요한 배경지식들, 도제식 훈련, 고도의 지적 훈련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 듀이의 진짜 주장이다.

6) 위의 책, p123

여기서 우리는 또다시 듀이식 모순(paradox)에 빠지게 된다. 듀이가 말한 감상자의 유사창작행위 이론은 매우 활동적인 진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감상자에 대한 예술 교육적 입장은 매우 주지적인 보수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우리가 듀이를 어느 한쪽의 시각으로 결코 해석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이와 같은 지점들 때문이다.

이러한 난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우리는 듀이가 지속적으로 통합성을 강조하고 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듀이가 예술에 있어서 가지고 있는 진보적인 생각들과 교육에 있어서 가지고 있는 보수적인 생각들이 '하나의 경험' 안에서 얼마든지 통합될 수 있다고 보고 있으며, 이러한 듀이의 생각은 심미적 경험과 예술교육의 입장차이를 통합적으로 나타내는 인용문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난다.

다시 말해 하나의 경험으로서의 심미적 경험, 그 자체에 관해서는 재인의 답습을 벗어버리고 감상자의 독자적이며 창조적인 경험을 요구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이를 위해 필요한 감상자의 유사창작행위 관해서는 예술가가 노력한 것에 필적할 만한 고도의 지적 훈련과 도제식 훈련방법을 내세우는 이것이 듀이의 통합적인 교육관 -하나의 경험- 속에서는 얼마든지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가 지금까지 듀이식의 교육법으로 이해해온 감상자의 자유로운 창작행위나, 참여자 중심의 흥미위주의 교육프로그램들이 듀이가 실제 주장한 예술교육방안은 아니었다는 점은 무척 흥미로운 대목이다. 오히려 듀이는 참여자의 흥미보다는 작품 자체의 집중하고, 몰두할 수 있게 하는 여러 가지 고도의 지적 훈련이나 예술실기 교육에서 흔히 이뤄지는 도제식 교육방법들을 통해 예술교육이 이뤄질 수 있다고 보았고, 이는 예술을 참여행위가 아닌 지적행위로 인식한 듀이의 모더니즘적인 예술철학의 사고방식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다.

포스트모더니즘 사회를 사는 우리는 예술을 지적행위로 인식하는 것에 대해 본능적으로 거부반응이 있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참여자의 눈높이 맞춘 흥미위주의 교육이 우선시 되어야 하며, 또한 그렇게 교육을 받아온 세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좀 더 듀이의 해석을 깊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듀이는 우리 마음에 새로운 경험을 받아들일 수 있는 조직화 된 마음체계가 있다고 주장한다.⁷⁾

이 마음의 체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경험과 이전의 경험을 통합하고 경험대상을 소화 시키며 새로운 형태의 이미지를 생산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숙성의 시간, 그것들의 의미가 분명해지고 명료해지며 강렬한 심미적 경험을 맞이하는 그 순간에, 모든 것을 하나로 통합시키려는 강렬한 움직임이 나타나게 된다.⁸⁾ 이것이 바로 절정으로서의 하나의 경험이고, 인생에 단 한 번이라도 이와 같은 경험을 했던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아무렇게나 살 수 없게 될 것이다.

결국, 듀이가 말하는 '하나의 경험'은 인생을 가치 있게 살아가기 위한 전제조건이 된다. 그러므로 듀이는 인생에 있어 '하나의 경험'을 이룩하기 위한 신중한 태도를 요구하고 있다. 어쩌다 우연한 계기로 만나게 된 짜릿한 경험은 하나의 경험이 될 수 없다. 일상의 특정한 경험이 연속적으로 쌓이고 쌓여 결과적으로 어떠한 목적을 달성하게 된다면 그래서 그것이 무언가 생산적인 결과물을 내놓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의 경험과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들어 줄 하나의 경험이 될 것이다.

이런 믿음과 신념 위에 세워진 그의 경험중심주의 교육관을 이해할 때 듀이가 말하는 심미적 경

7) 위의 책, p127

8) 위의 책, p127

힘은 결코 가벼운 성질의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만약 우리가 셰익스피어와 같은 소설가가 되어 고뇌하고 고뇌하면서 작품을 써 내려갔다고 해보자. 그래서 로미오와 줄리엣과 같은 비극적인 사랑에 관한 소설을 완성하였다고 가정해보자. 그렇다면 이제 그 소설은 독자들과의 만남을 기다리는 살아있는 유기체가 된 것이다.

이제 우리는 다시 독자가 되어 그 비극적인 소설을 읽어내려간다. 소설을 읽으면서 자신의 지난간 사랑의 아픔을 떠올리게 되면서 소설 속 주인공이 마치 나 자신이 된 듯한 강렬한 심미적 경험을 하게 되었다고 해보자. 여기서 작품을 다 읽은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소설을 다시 읽어 보면서 자신에게 와닿는 부분에 밑줄을 긋고, 주인공의 대화를 다시 써본다든지, 결말을 새로 써보기로 한다. 자신의 언어로 작품을 재창조해나가는 이러한 과정에서 작품의 주제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게 된다. 이별의 아픔은 비극적이지만 한 것이 아니라 인생의 성장과 성숙을 가져다준다는 주제의 확장의 일어나게 된다. 그리고 더 나아가 자신에게 아픔을 가져다준 사람을 용서하거나, 자신의 삶 그 자체를 용서하고 다시 새로운 사랑을 기대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된다면, 독자는 작품을 자신의 것으로 완전히 재창조한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위해서 선행되어야 할 지식은 무엇인가. 먼저 작품을 읽을 수 있는 글에 대한 이해, 문장, 문법에 대한 이해를 포함하여, 문학(픽션)에 대한 이해, 그리고 비극에 대한 이해가 배경지식으로 필요할 것이다. 그렇다면 후행 되어야 할 지식은 무엇인가. 독자는 좋아하는 구절을 필사하거나 메모할 수 있다. 동일작가의 다른 작품을 찾아볼 수도 있고, 고전에서 현대문학에 이르기까지 비극적인 사랑에 관한 소설의 대표작을 읽을 수도 있다. 이와 반대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소설을 읽을 수도 있다. 소설 장르에 대한 공부를 시작하게 되면서 마침내 스스로 작가가 되어 자신의 구상한 새로운 소설을 직접 작성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시도들이 심미적 경험을 둘러싼 지적 노력이라고 할 때, 이러한 과정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배우고 훈련하는 것을 예술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듀이가 의미하는 심미적 경험과 예술교육의 관계성을 바로 이와 같은 것이다. 즉, 예술과 예술을 둘러싼 환경(교육)의 상호작용으로서 그것이 활발하게 교류할 수 있도록 예술에 관한 인지적 능력을 훈련하는 것이 심미적 경험에 필요한 예술교육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본 고의 논지는 참여자의 흥미위주의 교육프로그램이나 체험 위주의 예술교육방법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듀이식의 예술교육으로 이해하고 있는 교육방법들이 실제 듀이의 예술교육 철학의 입장과는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데 있다. 이러한 교육방법은 후대 듀이의 예술철학을 계승한 진보주의적 교육자들에 의해 계발된 교육방식으로 보인다.

3. 나가며.

듀이의 '하나의 경험'은 듀이 예술철학의 핵심이론으로서 여러 가지 논의가 많이 이어졌으나 이에 대한 잘못된 통념과 오류로 인해 그 의미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했다. 무엇보다 '하나의 경험'을 '하나의 카타르시스적 미적 경험'으로 잘못 해석한 점이 예술교육에서 잘못 차용한 예라고 할 수 있고, 듀이가 말한바, '하나의 경험'이란 인간이 자연과의 상호작용으로 변화 발전하고 성장하는 과정

에서 겪는 다양한 경험 중에서 가장 완결성이 높고, 충만하며, 조화와 균형을 갖춘 경험의 각각의 구성요소가 전체적 질성, 특히 심미적 질성에 의해 통일감을 이루는 규범적이고 가치 있는 경험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하나의 경험은 매우 체계적이고 조직화된 질서 속에서 누적된 경험들이 나타나는 결과물로서 실제 나타나는 물리적 형태는 매우 정형화되고 정제된 예술작품에 비교 할 수 있다. 이는 듀이의 사상이 모더니즘적인 사고와 미국주의적 맥락 속에서 출발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는 대조적으로 예술에 대한 듀이의 견해는 매우 진보적인 것인데, 그것은 예술에 있어 창작과 감상의 경계를 허물고, 예술가와 감상자의 경계를 허물며, 마침내 일상과 예술의 경계를 허무는 작업으로 발전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은 기존의 관습을 해체시키고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고자 하는 포스트모더니즘적인 양상으로서, 듀이의 예술철학에서는 모더니즘적인 양상과 포스트모더니즘적인 양상이 복합적으로 나타난다. 다시 말해 듀이는 모더니즘에서 포스트모더니즘으로 이행되는 과도기적 사상가임을 그의 예술철학에서 살펴볼 수 있다.

이러한 모순된 양상은 심미적 경험과 예술교육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데, 듀이가 말하는 심미적 경험에서는 작품을 그냥 재인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받아들이기, 혹은 작품에 뛰어들기와 같은 능동적인 인식 과정을 추구하는 진보적인 태도라면, 이를 위해서 필요한 예술교육의 방법으로 '도제식의 교육방법'을 추구하는 보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양 갈래의 입장이 듀이식의 교육관에서는 충돌되지 않고 완충되며 통합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듀이는 보수도 진보도 어느 한쪽의 입장에 서려고 하지 않았으며 각각의 의견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거침없이 말하는 사상가이자, 대립되는 지점이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은 얼마든지 '하나의 경험' 안에서 통합되고 완결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듀이의 사상을 이해하는데 '하나의 경험'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더이상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듀이의 주장에 의하면 현재의 예술교육과정들이 일정한 형식과 질서에 따라 일관되고 완결성 있게 진행되어야 하며, 참여자의 흥미위주의 교육방법이 아닌 듀이가 주장한 도제식의 교육방법을 통해 감상자의 지적 수준을 예술가의 지적 수준으로까지 어떻게 이끌어 낼 수 있는지를 새롭게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이다.

본 고에서는 심미적 경험을 통한 예술교육이 고도의 지적 훈련과 동일한 수준의 것으로 인식함으로써 예술교육을 정서적, 인성적 교육으로 제한하고자 하는 편협한 시각을 뛰어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이다. 예술은 과학이나 수학 혹은 철학이나 인문학과 같이 최정점의 학문체계이며, 예술교육은 단순 흥미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인지적 능력과 창의성 배양의 통합적 교육의 대안으로 새롭게 조명할 수 있는 근거를 듀이의 '하나의 경험'에서 찾을 수 있다.

참고문헌

1. 단행본

Dewey, John (1934) 『Art as Experience』: in J.A Boydston(ed).

박철홍 역(2016)『경험으로서 예술 I』나남: 파주.

2. 논문

박연숙(2014) 「<광부화가들>과 경험으로서의 예술- 존 듀이(John Dewey) 철학의 경험 개념에 근거하여」. 『인문과학연구』. 41, 323-343.

박주희(2016) 「미적 경험의 예술교육적 가치」. 『한국교육학연구』. 제22권 제3호, 149-169.

옥영희(2018) 「듀이(J.Dewey)와 들뢰즈(G. Deleuze) 예술론에 함의된 '창의성'의 교육학적 재개념화」. 『조형교육』. 제68집.

이선이(2017) 「듀이에서 경험의 의미 - 듀이의『경험으로서 예술』을 중심으로」. 『감성연구』. 제15권. 193-215.